

## 『中藏經』三卷本の 解題와 解釋

朴 炫 局 · 趙 勉 彙 \*

### I. 緒 論

『中藏經』은 一名 『華氏中藏經』, 또는 『華佗中藏經』이라고도 通稱되며<sup>1)</sup> 漢代의 華佗가 撰한 것으로 傳해지고 있다. 그러나 撰者인 華佗의 著述이 많지 않기 때문에 比較的 研究가 되지 않은 冊이다. 『中藏經』에 關聯된 資料를 살펴보면 『三國志』, 『後漢書』 등 華佗의 書에 關한 記錄<sup>2)</sup> 과 信憑하기 어려운 『中藏經』의 序文 內容, 『中藏經』以後의 醫書라 할 수 있는 『千金方』, 『外臺秘要』 등에서 이 冊에 對한 言及이 거의 없다는 點 등으로 因해서 『中藏經』의 著者와 形成 過程에 對하여 여러 가지 說이 있으며, 그 중 後人의 僞作이라는 說이 지배적이지만 그 또한 確實한 根據는 보이지 않는다. 醫書는 그 屬性에 依據하여 學術的인 價値가 없으면 계속 傳해져 내려올 수 없다. 이러한 觀點에서 『中藏經』의 內容을 分析하여 보면 上卷 中卷 下卷의 三部分으로 나뉘어져 上卷 中卷의

內容은 모두 四十九論으로 分類되어 天地, 陰陽, 水火, 寒熱, 虛實, 脈色, 臟腑辨證, 痺證, 痞證, 中風, 水腫, 脚氣, 淋證, 癰疽, 積聚, 癰疽, 疔瘡 등이 記載되어 있고, 病源, 病理, 診斷 治療의 法則이 比較的 詳細히 記述되어 있으며, 下卷 『療諸病藥方六十道』에는 60余種의 方劑가 記載되어 있는 바, 特히 그 內容上 『內經』의 思想을 기본 바탕으로 虛, 實, 寒, 熱, 生, 死, 順, 逆의 八種의 診斷 및 治法과 水火法, 個人의 臨床經驗을 結付시킨 初期 醫方書의 形態 등 學術的인 面에서 높은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思料된다.

실제로 『中藏經』의 著者에 關하여 疑問이 있음은 다른 醫籍에서도 普遍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部分的이나 華佗의 學術思想이 包含되어 있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으며 그 內容 및 文體上 宋代(A.D.960年~1289年) 以前의 六朝時期(A.D.221年~581年)까지 그 形成時期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이 考證되고 있으므로<sup>3)</sup> 上述한 『中藏經』의 內容에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1) 『補續後漢書藝文志』에는 『華佗中藏經』, 『後漢藝文志』에는 『華氏中藏經』, 宋『直齋書靈解題』에는 『中藏經』으로 記載되어 있다. 『宋史藝文志』에는 『黃氏中藏經』으로 되어 있으나 『黃氏』는 『華氏』의 誤字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賈維誠, 『三百種醫籍錄』, 哈爾市,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2, p.207 參考)
- 2) “佗臨死, 出一卷書與獄吏, 曰…『此可以活人』 吏畏法不受, 亦不彊, 索火燒之.”(陳壽, 『三國志』, 卷二十九, 『方技傳』,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p.802,803 參考), “佗臨死, 出一卷書與獄吏, 曰…『此可以活人』 吏畏法不敢受, 不彊與, 索火燒之.”(范曄, 『後漢書』, 卷八十二, 『方術列傳』,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687 參考)
- 3)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156,157 參考, 嚴世藝, 中國醫籍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2, p.2048 “此書文意古奧, 似是六朝人所撰, 非後世所能假託…”

關하여 書誌學的인 研究 檢討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이에 筆者는 『中藏經』의 傳本過程 등을 調査하고 一卷本, 三卷本, 八卷本, 二卷本 4種의 傳本形態 중 現在 가장 普遍的인 三卷本 系統에 屬하는 『中藏經』<sup>4)</sup>과 『中藏經語釋』<sup>5)</sup>을 중심으로 解釋을 試圖하면서, 三卷本 系統과 함께 重要 版本으로 認識되는 八卷本 系統 등과 比較를 하고 『內經』 등 다른 醫書들과 關聯된 部分을 살펴보면서 『中藏經』의 學術思想을 考察하고자 한다.

## II. 『中藏經』에 對한 小考

### 1. 華佗와 『中藏經』의 形成過程.

華佗는 內科, 外科, 婦人, 小兒, 針灸, 養生 등의 여러 方面에 能通했던 漢代의 뛰어난 醫家로 알려져 있다. 『三國志』와 『後漢書』 등의 古文獻에 記載된 바 華佗의 名은 ‘敷’이고, 字는 ‘元化’로서 沛國(지금의 安徽 縣) 사람이며 生卒 年代는 紀元 二世紀 中葉부터 三世紀初(208年)로 나타나 있고, 그의 業績은 대대로 人口에 膾炙되어 民間에서 널리 崇仰되어 왔다.<sup>6)</sup>

華佗가 活動했던 漢代는 經濟的, 文化的으로 多方面에 걸쳐 많은 發展을 이룩한 時期로 醫藥學的 方面에서도 많은 發展을 거듭했는데 例를 들어 『內經』, 『傷寒雜病論』, 『神農本草經』 등의 出現으로 醫學的 理論의 基礎가 確立되었다. 華佗는 醫生으로서 彭城(지금의

江蘇徐州), 廣陵(지금의 江蘇鹽城縣西北), 東陽(지금의 山東舊恩縣西北), 琅邪(지금의 山東沂北) 등의 地方에서 특히 이름을 날려 後世에 그에 關한 傳說이나 業績이 이들 地方에 關聯된 것이 많다.<sup>7)</sup>

華佗의 名을 붙인 書籍을 考察해 보면 梁 『七錄』에 『華佗內事』 五卷이 記載되어 있고, 『隋書 經籍志』에 『華佗觀形察色并三部脈經』 一卷과 『華佗枕中灸刺經』 一卷이 記載되어 있다. 또 注를 달아 吳普가 撰한 『華佗方』 十卷이 있는데 모두 流傳되지는 않는다.<sup>8)</sup>

華佗의 弟子로 널리 알려진 이로 廣陵의 吳普, 彭城의 樊阿, 長安의 李當之가 有名하고, 梁 『七錄』에는 吳普가 本草에 뛰어났다 되어 있고, 『隋書 經籍志』에는 李當之가 『本草經』 一卷을 지었다 했고, 吳普가 『華佗藥方』 一書を 지었다 했으나 모두 散佚되었다. 그러나 그 후의 關聯文獻인 『太平御覽』 內의 『吳普本草』 등에서 그들이 著述한 冊의 部分的인 內容을 볼 수 있어 華佗의 醫學思想을 여기에서 어느 정도나마 엿볼 수 있다.

『三國志』, 『後漢書』 등의 史料에서 華佗에 關聯된 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三國志』 중에 16가지 病例<sup>9)</sup>가 나타나고, 『後漢書』에는 8種의 病例<sup>10)</sup>가 나타나는데 『三國志』에 記載된 바와 內容이 서로 비슷하다. 『甲乙經』 序論에도 華佗의 病例 1種이 있고, 『晉書』에도 病例 1種이 나온다. 『脈經』 중에는 華佗의 醫術에 關聯된 記錄이 있으며, 그 외 裴松之가 『三國志』의 『華佗別傳』을 注하면서 5種의

4) 華佗, 『中藏經』,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5) 李聰甫, 『中藏經語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6) 陳夢賁, 『中國歷代名醫傳』, 北京, 科學普及出版社, 1987, pp.13~15.

7) 陳壽, 『三國志』, 卷二十九, 『方技傳』,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p.799~807 參考.

8) 孔健民, 『中國醫學史綱』, 北京, 河北出版社, 1988, p.56.

9) 陳壽, 『三國志』, 『華佗傳』,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p.200~203.

10) 范曄, 『後漢書』,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p. 686, 687.

病例가 나타나고, 『太平廣志』에 4種의 例가 있으나 内容上 後人이 小說 形式으로 써서 信憑하기는 어렵다.<sup>11)</sup> 이들 内容을 보면 ‘五禽戲’ 등의 體操와 針灸術, 外科, 痲醉術에 뛰어났을 뿐 아니라, 특히 診斷 治療的인 面에서도 卓越한 點이 나타나는데 『三國志 魏書』에 記錄된 華佗의 醫療 事蹟, 例를 들어 鹽漬嚴昕의 望診이나 督郵徐毅의 預後判斷<sup>12)</sup> 등을 보면 華佗가 望診에 精通했음을 알 수 있다. 王叔和의 『脈經』 卷五에 記述한 「扁鵲 華佗察聲色要訣」에서는 扁鵲과 華佗의 思想을 包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부분이 華佗의 것이라고만 말할 수 없고 華佗의 思想과 經驗이 扁鵲의 것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 說明한 病人의 面, 目, 形色, 病狀 등의 情況說明이나 生死의 判斷方法, 病人의 面容, 色澤, 形態의 모습을 詳細히 記錄한 것 등은 華佗가 診斷에 뛰어났음을 뒷받침해 준다 하겠다.

『中藏經』 또한 『內經』의 思想을 根幹으로 四診을 參照하면서 ‘色’과 ‘脈’을 重視하는 등 診斷面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中藏經』의 形成過程에 關한 說로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 後人의 僞作이라는 說의 根據를 考察해보면 대략 네 가지로써 다음과 같다.

첫째 史書에 華佗의 冊이 燒却되었다는 점,

<sup>13)</sup> 둘째 目錄志에 『中藏經』에 대한 言及이 늦게 나타난다는 점, 셋째 鄧處中의 序文 内容이 信憑하기가 어렵다는 점, 넷째 『中藏經』의 内容 중에 나오는 『金匱』, 『金匱大要論』, 『至眞要論』, 『調神氣論』 등의 書名이<sup>14)</sup> 漢時代以後의 것이라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네 가지 面을 좀더 檢討해보면 有意해야 할 점을 發見할 수 있다.

첫째, 『三國志』 및 『後漢書』 등에 記載된 바를 보면 華佗가 獄吏에게 준 후 燒却된 冊은 ‘一卷’ 뿐으로 『中藏經』 系統의 冊이 華佗의 弟子나 華佗가 撰한 것임을 否定한 記錄은 없다. 즉 『中藏經』은 活人하는 醫書이기 때문에 구태여 彈壓할 必要가 없었다고 여겨지는데, 때문에 이 冊이 대개 後人의 僞作이라는 說이라고 지금까지 認識되는 바와는 달리 華佗의 遺著일 수도 있고, 그의 弟子인 吳普나 樊阿가 스승의 說을 모아서 編輯한 冊일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으며, 『經籍志』와 『藝文志』에 收錄된 「華佗方」은 華佗의 死後에 傳世된 것으로 推定할 수 있다.<sup>15)</sup>

둘째, 『中藏經』이 宋代의 『通志·藝文略』 등에 이르러 뒤늦게 나타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면 華佗가 曹操에 의해 참살을 당한 후, 이 冊이 隱匿되어 있다가 吳普나 樊阿에 의해 傳世되어 나타났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時代가 激變하고 戰爭 등의 참화를 겪으면서

11) 馬堪溫, 「華佗是中國醫學史上的光榮」, 27(1), 中醫雜誌, 1986, pp.54, 55.

12) 陳壽, 『三國志』, 서울, 景仁文化社, 1983, p.201, “鹽漬嚴昕與水人共候他, 適至, 謂昕曰.『君身中佳否』 昕曰.『自如常』 佗曰.『君有急病見於面, 莫多飲酒.』 坐畢歸, 行數里, 昕卒頭眩墮車, 人扶將還, 戴歸家, 中宿死.”, “督郵徐毅得病, 佗往省之. 毅謂佗曰.『昨使醫曹吏劉租針胃管訖, 便苦咳嗽, 欲臥不安.』 曰.『刺不得胃管, 誤中肝也, 食當日減, 五日不救.』 遂如佗言.”

13) 脚注 2)項 參照.

14) 第二篇「陰陽大要調神論」 “『金匱』曰, 秋首養陽, ……”  
第三篇「生成論」 “故『金匱』, 『至眞要論』云, 心生血, ……”  
第七篇「寒熱論」 “『金匱大要論』云, 夜發寒者從, ……”  
第十九篇「勞傷論」 “故『調神氣論』曰, 調神氣, ……”

15) 孫光榮, 「療諸病藥方六十道」 初考, 江西中醫藥, 19(5) : 53, 1988. 參照.

古籍이 뒤늦게 目錄志에 나타나는 것은 적지 않은 일이며 또한 後人이 整理하여 傳世하는 바도 매우 많은 일이다. 더구나 가장 오래된 醫經이라는 『黃帝內經』조차 『漢書藝文志』에 이르러서야 그 書名이 처음 나타나고<sup>16)</sup> 기타 다른 醫書 또한 그러한 것이 許多한데, 『中藏經』만 目錄志에 늦게 나타난다는 理由로 後人의 僞托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여겨진다.<sup>17)</sup>

셋째, 鄧處中의 序에 自稱 華佗의 外孫이라 말하고, 꿈을 꾸 후 이 冊을 얻었다고 記錄되어 있는데<sup>18)</sup> ‘盡菅’이란 學者가 鄧處中의 生存 記錄을 考證한 바 있으므로 일단 그 內容을 완전히 否定하기는 어렵고, 傳本의 比較上 『中藏經』 傳本마다 鄧處中의 序文이 다 실린 것은 아니고 舊抄本과 趙孟 寫本에는 序文 目錄이 없으니 꼭 鄧處中의 序가 原書 原刊의 序文이 된다고는 斷定지을 수 없다. 또한 鄧處中의 序文이 『中藏經』 原刊의 실제 序文이 된다하더라도 『金匱』, 『本經』 등 上古의 알려지지 않은 內容을 빌어 그 說을 導入한 것과 더불어 이러한 두 가지 점은 道家에서 흔히 그 價値를 높이고 드러내 보이기 위해 托名의 方法을 使用하는 것과 같은 類로 여길 수 있는데 이는 鄧處中의 序文도 『中藏經』의

價値를 補助하는 것과 같은 脈絡으로 여겨진다.<sup>19)</sup>

넷째, 『中藏經』의 內容 중에서 나오는 『金匱』, 『至眞要論』, 『金匱大要論』, 『調神氣論』 등의 名稱은 仲景의 書가 아니고 上古의 醫經으로 思料된다. 때문에 仲景의 文章에서 引用되어지는 곳은 조금도 없는데, 『素問』, 『靈樞』의 引用은 그렇지 않다. 더구나 『內經』에서도 『金匱』, 『大要』의 書名을 引用하고 있는 바<sup>20)</sup> 『金匱』 등이 반드시 同時代人인 張仲景의 著書를 意味함은 아니다. 실제로 唐代에 이르러 王 勣이 整理한 『素問』에서는 張仲景, 王叔和, 孫思邈의 著述을 골고루 引用한 바 仲景과 거의 同時代人인 華佗 또한 당연히 그 時期 前에 該當하는 醫經을 根據로 撰輯하였다고 思料되며 『中藏經』과 『素問』, 『難經』, 『脈經』, 『千金要方』 등을 서로 比較 考證해 보면 그 意味와 낱말이 비슷한 곳이 많은 것도 이러한 理由라고 여겨진다.<sup>21)</sup>

따라서 이러한 點들을 綜合해 보면 『中藏經』은 華佗가 당시에 볼 수 있었던 醫經들을 根據로 要點을 간추리고 內容을 連結시켜 자기 臨床經驗과 結付시켜 華佗 자신이 펴냈거나 弟子들이 펴낸 것이라고 충분히 考慮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社會的 與件이

16) 表天根, 『黃帝內經에 對한 書誌學的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2. P.3.

17) 孫光榮, 『“療諸病藥方六十道” 初考』, 江西中醫藥, 19(5) : 53, 1988.

18) 華佗, 『中藏經』, 『華氏中藏經序』,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P.8 “一日, 因酒食于公宜山古洞前, 忽聞人論療病之法, 先生訝其異, 石床上有一書函, 子自取之, 余乃先生外孫也, 因吊先生寢室, 夢先生引余坐, 語: 『中藏經』 眞活人法也, 子可取之, 勿傳非人.”

19) 孫光榮, 『“療諸病藥方六十道” 初考』, 江西中醫藥, 19(5) : 53, 1988.

20) ① 『黃帝內經素問』, 四部叢刊正編 (이하의 脚註에 나오는 『素問』, 『靈樞經』 原文은 四部叢刊本을 根據로 하였다.) 『病能論篇』 第四十六 “金 者, 決死生也”, 『五常政大論篇』 第七十 “故大要曰無伐化, 無違時, 必養必和, 待其來復, 此之謂也”, 『六元正紀大論篇』 第七十一 “大要曰, 甚紀五分, 微紀七分, 其差可見, 此之謂也”

② 『靈樞經』 『九鍼十二原篇』 第一 “大要曰, 徐而疾則實, 疾而徐則虛, 言實與虛”

③ 王冰注 『五常政大論篇』 第七十 “大要上古經法也, 引古之要旨, 以明時化之不可違不可以力代也”.

21) 孫光榮, 『“療諸病藥方六十道” 初考』, 江西中醫藥, 19(5) : 53, 1988.

閉鎖的인 關係로 曹操에 의해 참살을 당한 후 「中藏經」은 오랫동안 隱匿되어 있으면서 後人의 손을 거쳐 病名과 方이 增附되어 여러 種의 寫本이 나왔으니, 鄧處中의 序는 僞作이지만 「中藏經」의 基本 骨格 自體는 後世人이 假托할 수 없는 바로 이는 華佗가 직접 撰輯하고 後世人이 增附하였다고 考慮될 수 있는 바 「中藏經」이 後人의 僞作이라는 說은 確實한 根據는 없다고 할 수 있다.

## 2. 「中藏經」傳本の 流傳過程.

北宋 以前 「中藏經」傳本の 流傳狀況은 明確하지 않다. 宋代에 이르러 여러 種의 傳本이 나타나는데 北宋 때의 ‘陸(從老氏家蔣)本’, ‘閩中(倉司刊)本’과 南宋 때의 ‘秘書省續編到四庫闕書目’, ‘通志·藝文略’, ‘遂初堂書目’, ‘宋史藝文志’ 등의 書志 中에 收錄된 傳本이 있고, 宋代 以後의 流傳過程에서는 一卷本, 二卷本, 三卷本, 八卷本이 나타나는데 이를 살펴보면 二, 三, 八卷本은 모두 一卷本에서 나온 것으로 思料된다. 이러한 四種類의 傳本 系統을 概略的으로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sup>22)</sup>

### 1) 一卷本

「通志」, 「秘書省續編到四庫闕書目」, 「遂初堂書目」 등에 記載된 것이 一卷本 系統이다. 內容面에서는 49論, 60余方을 包含하고 三卷本 系統과 비슷한 點이 많다.

### 2) 三卷本

南宋의 ‘樓钥氏校刊本’으로부터 始作하는

대 ‘閩中本’과 ‘陸本’을 基本으로 校刊했으며 內容面에서 49論 및 60余方이 실렸다. 그 種類를 時代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元代: 書法家인 趙孟頫氏(1254~1322年)의 寫本이 二種 있는데 하나는 臺北故宮博物院에 所藏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下落되었다. 中國에 影印本이 二種 있어 遼寧省圖書館과 上海市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明代: ‘江澄中氏刊本’(年代는 正確하지 않고 現在는 失傳되었다.)

清代: 1808年(嘉慶 13年) ‘孫星衍氏校刊本’<sup>23)</sup> ‘平津館叢書’에 收錄되어 있다.)

1881年(光緒 6年) ‘上海千頃堂書店石印本(徐沛氏校本)’

1883年(光緒 9年)刊本(‘徐沛氏校本’을 根據했다.)

1884年(光緒 10年) ‘平津館復刊本’ ‘朱氏槐廬家孰刊本’(‘內照圖決’)이 실렸고 山西省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다.)

1885年(光緒 11年) ‘朱氏復刊本’, ‘校經山方刊本’

1891年(光緒 17年) ‘周學海氏校刊本’(‘周氏醫學叢書’에 收錄되어 있다.)

‘迪德堂刊本’

清代以後: 1936年 「中國醫學大成」本

1939年 「叢書集成」本

1942年 ‘蔡陸仙等氏石印本’

1956年 ‘商務印書館排印本’

22) 馬繼興, 「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pp.156~158.

23) 孫星衍氏의 序文內容을 보면 「中藏經」傳本の 種類가 여러가지 存在한다는 것은 後人들이 고친 바가 많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樓钥氏 跋文을 보면 宋代 以前에 이미 二種의 傳本形態가 있었다 했고, ‘閩中倉司刊本’을 根據한 ‘吳勉學氏刊本’과 ‘樓钥氏刊本’을 比較해보면 內容上 數百字가 틀리고 藥方 또한 2/3 정도가 增符되었다고 했다.(丹波元胤,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494, 參考).

1936年 ‘人民衛生出版社据孫星衍本鉛印本’

1985年 ‘江蘇科技出版社吳國昌校注本’(『中醫古籍小叢書』에 收錄되어 있다.)

### 3) 八卷本

最初의 것은 明代 ‘吳勉學氏校刊本’으로 1601年(萬曆 29年)에 『古今醫統正脈全書』에 실렸고 49論, 130余方이 실렸다. 内容面에서 三卷本보다 增冊되었으나 次例는 그대로이다. 이외에 明代에 나온 것으로 ‘五車樓本’이 있다.

清代以後의 八卷本 系統으로 木刻本으로 重要な 것은 다음과 같다.

: 1878年(光緒 4年) ‘上虞蘭閣(또는 蘭蘭)山房徐氏(舞山)刊本’(『內照法』이 收錄되어 있고 1880年, 1884年의 重刊本이 있다.)

1880年(光緒 6年) ‘聯興堂憑烘記刊本’

1885年(光緒 11年) ‘宋氏刊本’(‘黑龍江中醫學院’所藏)

1907年 京師醫局에서 重刊된 ‘醫統正脈’本 石印本으로 重要的 것은 다음과 같다.

: 1911年(宣統 3年) ‘華英書局本’, 年代가 確實치 않은 ‘千頃堂書局本’, ‘文瑞樓石印本’

日本刊本에는 1742年(寬保 2年)에 浪華書局에서 刊行한 ‘新校正華氏『中藏經』’(‘吉風玄昌訓注本’)이 있다.

精抄本에는 1843年(道光 14年)의 ‘何尤瑛氏永德堂抄本’(‘湖南中醫學院’所藏)이 있다.

4) 二卷本 1785年(乾隆 50年) 周錫瓚氏가 舊抄一卷本을 根據로 吳勉學本을 參照하여 二卷本을 만들었고 책머리에 鄧處中의 序文을 記載하였는데 失傳되었고 1800年(嘉慶 5年)에 復刊本이 나와 上海第一醫學院에 所藏되어 있다.

이러한 4種 形態의 刊本들 중 現存하는 重要版本에는 ‘『古今醫統正脈全書』本’(1601年), ‘日寬保二年刊本’(1742年), ‘平津館叢書』本’(1808年‘孫星衍氏校刊本’)등이 있다.<sup>24)</sup>

## III. 研究方法

1. 本論 中の 『中藏經』 原文은 傳本 形態 中에서 三卷本 系統으로 1985年에 ‘江蘇科學出版社’에서 刊行된 『中藏經』<sup>25)</sup> 原文을 基本으로 하였고, 그 内容에 記載된 바 光緒 丁未年(1907年)에 京師醫局에서 重刊된 『醫統正脈』本(以下 醫統本으로 略稱함)과 日本의 寬保二年(1742年)에 刊行된 것(以下 寬保本이라 略稱함)과<sup>26)</sup> 역시 三卷本 系統 中の 하나인 1990年 ‘人民衛生出版社’에서 刊行된 『中藏經語釋』<sup>27)</sup>을 比較해 가면서 脚註를 달았다.

2. 解釋은 原文의 뜻을 損傷하지 않는 限度 內에서 直譯을 爲主로 하였으며 될 수 있는 데로 敷衍 說明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 때문에 直譯으로 뜻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含蓄된 意味를 지닌 諺말이나 現在는 잘 使用하지 않는 名詞 등은 되도록이면 註釋을 加하였으며 자주 接하는 名詞述語 등은 注를 달지 않았다.

24) 賈維誠, 『三百種醫籍錄』, 哈爾市,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2, pp.207~209.

25) 華佗, 『中藏經』, 江蘇省,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5.

26) ‘醫通本’과 ‘寬保本’은 『中藏經』 傳本 形態 中 八卷本 系統에 屬한다.

27) 李聰甫, 『中藏經語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3. 脚註의 內容은 대략 다음 네 가지 方法으로 試圖하였다.

가) 研究方法 1에서 上述한 각 刊本の 比較上 서로 다른 文句와 單語를 指摘하였다.

나) 가)의 內容 중 必要時에 文意에 따라 各各 解釋을 加하였다.

다) 가), 나)의 內容으로 意味 파악이 不充分하거나 어려운 語句나 낱말은 『大漢和辭典』<sup>28)</sup>을 根據로 그 例를 調査해보았다.

라) 『中藏經』本文 중 『內經』 및 기타 다른 重要 醫書들과 關聯된 部分을 살펴보았다.

4. 各論의 첫부분에 該當하는 各 篇章의 內容을 간추려 要旨를 簡略하게 說明하였다.

5. 下卷의 ‘療諸病藥方六十道’는 文章이 簡潔하여 쉽게 理解될 수 있으므로 解釋을 避하고 研究方法 3의 內容을 따라 脚註를 달았다.

6. 上 中卷의 全體의인 內容과 下卷 ‘療諸病藥方六十道’의 內容 意義를 大略적으로 考察해보았다.

#### IV. 本 論(解釋部分 생략)

#### V. 考 察

華佗의 字는 ‘元化’이고, 名은 敷이며 沛國譙 사람이다. 『後漢書』와 『三國志』에 記錄된 人物로 東漢의 有名한 醫家로서 紀元後 2世紀初에서 3世紀初(208年)까지 生存했던 것으로 여겨지며, 그가 살았던 漢代에는 經濟的, 文化的으로 安靜된 바탕 하에 先秦時

代의 醫學的 發展을 土臺로 많은 發展을 이룩하였는데, 특히 醫學方書面에서 種類와 數量의 多樣함은 『史志』와 『類書』 등에서 充分히 살펴 볼 수 있다.

그러나 歷史의 흐름 속에 大部分 消失되고 佚文만 宋代 以前의 醫籍 중에 收錄되어 간간이 엿볼 수 있는데, 그런 와중에 드물게도 比較的 完全한 形態로 傳해지는 『中藏經』의 形成過程에 關한 說은 매우 多樣하여 그 중 後人이 僞托한 것이라는 說이 支配的이지만 보다 깊이 研究해보면 反證할 수 있는 根據 또한 충분히 보여진다.

특히 醫書는 學術的인 價値가 없으면 傳해져 내려올 수 없고 그런 면에서 『中藏經』自體가 內容的인 면에서 系統的이고 簡明하며, 實用的으로 整理된 特徵과 높은 學術價値를 지님으로써 지금까지 傳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에서 『中藏經』의 內容과 文章을 보다 深度있게 다루어 볼 必要가 있다고 思料된다.

上 中卷 49論과 下卷 ‘療諸病藥方六十道’의 內容을 보면 四時陰陽變化가 人體의 生理病理에 對한 影響, 陰陽寒熱虛實上下에 따른 病變 및 措置方法, 臟腑의 虛實寒熱生死順逆에 따른 脈症法, 各種의 病症, 診脈과 察聲色形證 등의 決死法, 方藥의 運用 등에 關한 點이 실려 있고 이러한 內容들은 『內經』, 『難經』 및 上古의 醫學理論을 바탕으로 해서 脈症을 中心으로 論述되었는데 특히 虛·實·寒·熱·生·死·順·逆의 八綱辨證理論은 以後의 臟腑辨證理論의 基礎가 되었다. 總論에 該當하는 第 1論~20論, 臟腑의 虛實寒熱生死順逆을 診斷하는 部分인 第 21論~32論, 各種 疾病의 診斷과 治療 方法을 論한 第 33論~49論까지의 上·中卷의 內

28) 諸橋徹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館書店, 1984.

容과 附方 68 種을 記載한 下卷의 內容 및 意義를 보다 자세히 考察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中藏經』上·中卷의 學術思想에 關한 考察

清代의 周學海가 『新刊中藏經·序』에서 이르기를 “觀其書，多樣脈證，莫非『內經』之精義要旨，而又時時補其所未備，不但文章手筆非後人所能托，其論脈論證，至確且顯，繁而不泛，簡而不略，是熟于軒岐諸書，而同見陰陽氣血，升降虛實之微者，非知之眞，孰能言之，鑿鑿如此。”라 하여 『中藏經』의 學術思想이 뛰어난을 強調했는데<sup>29)</sup> 『中藏經』上·中卷이 內容을 보면 모두 49論으로 分類되어 天地，陰陽，水火，寒熱，虛實，脈色，臟腑辨證，痺證，痞證，中風，水腫，脚氣，淋證，積聚，癰疽，疔瘡 등이 記載되어 있고，病源，病理，診斷治療의 法則이 比較的 詳細히 記述되어 있는데 이의 重要 特徵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天人相應과 陽氣의 重要視

『素問·寶命全形論』에 이르기를 “夫人生於地 懸命於天 天地合氣 命之曰人”，“人以天地之氣生”이라 하여 『內經』에서는 天人相應의 整體觀을 基本的 特徵으로 하고 있는 바，『中藏經』에서는 이를 더욱 發展시켰다 할 수 있는데 上卷의 首篇인 『人法于天地論』을 보면 “人者，上稟天，下委地，陽以補之，陰以佐之。天地順則人氣泰，天地逆則人氣否。”라고 하여 天地之氣를 陰陽之氣로 說明하여 “上稟天，下委地”하는 중에 “陽以補之”하여 人體의 生命活動이 끊이지 않고 “陰以佐之”함으로써 機體가 滋養 됨을 說明하고， “天地順則人氣泰，天地逆則人氣否”， “人有百病，病有百候，候有百變，皆天地陰陽逆從而生”라 해서 天地 陰陽

活動이 順調로우면 人體도 역시 健康하고 陰陽이 逆亂하면 人體도 반드시 疾病이 發生한다고 하였다.

天人相應의 整體觀을 學術 思想의 前提로 陰陽의 屬性을 聯關시켜 相互 關係로 人體 生命 活動을 說明함으로써 『中藏經』에서는 ‘陰陽平衡’이 生命 活動의 基本이 됨을 말하였고，二편 『陰陽大要調神論』에서 “陽者生之本，陰者死之基”라 하여 陽氣가 陰氣보다 生命 活動에서 더 重要함을 強調하였는 바 “陰陽平，則天地和而人氣寧”의 要點을 言及했다 할 수 있다. “順陰者多消滅，順陽者多長生，逢斯妙趣，無所不靈”라 하여 『中藏經』全體의 內容에서 處方과 養生으로 病의 豫防을 強調하였고 “盈順陽氣”의 理論으로 後代 陽氣學派의 先河를 이루었으며 이렇게 陽氣를 重視한 思想은 『中藏經』의 重要한 學術特徵이라 하겠다.

#### 2) 臟腑辨證을 最初로 體系化

『中藏經』 學術特徵 중의 하나는 『素問』， 『靈樞』 등에서 分散되어 있는 臟腑病症理論을 簡略化하고 系統화하여 最初로 臟腑辨證體系를 이루었다 할 수 있다.

臟腑辨證論은 韓醫學의 辨證理論중 重要한 部門으로 臟腑解說을 基礎로 ‘望，門，問，切’의 診斷方法을 運用하여 臟腑의 病理와 病症을 關聯시켜 臨床治療를 試圖하는 辨證方法인데 『內經』， 『難經』， 『傷寒雜病論』 등은 現在의 臟腑辨證理論의 根本이 담긴 醫書라고 여겨지지만 『中藏經』 또한 臟腑辨證理論을 系統화하여 獨立된 辨證方法으로 승화시켰다. 그 特徵적인 것 중의 하나로써 ‘論五臟六腑虛實寒熱生死逆順之法’ 二十一篇을 들 수 있는데 이는 『素問』의 『玉機眞藏論』，

29) 郭振球, 『『中藏經』論疾疹病的思維方法』, 山西中醫, 7(4): 5, 1991.



「平人氣象論」, 「藏氣法時論」, 「脈解篇」과 「靈樞」의 「經脈」, 「本藏」, 「本神」, 「淫邪發夢」, 「邪氣臟腑病形」 등에記載된 臟腑의 生理·病理 理論과 諸疾病의 形證과 脈氣를 整理하고 歸納함으로써 本人의 臨床經驗과 結付시켰다 할 수 있다.

二十二篇의 「論肝臟虛實寒熱生死逆順脈證之法」에 나타나는 바 肝臟의 脈證을 辨證하는 것을 例로 들 것 같으면 먼저 肝의 生理에 關係된 內容인 ‘厥陰’, ‘主春氣’, ‘與少陽膽爲表裏’의 內容을 밝히고 아울러 ‘嫩而軟, 虛而寬’이라 하여 肝의 柔和하고 舒泄의 特性을 말했으며, 다음으로 ‘肝主弦脈, 而有弦長, 弦實, 弦虛’한 不同하고 太過不及한 病變을 說明하고, 肝의 病脈인 緩·急·大·小·滑·澁의 6種의 脈을 說明하면서 그 主症을 說明하였고, 肝病의 發展 過程을 說明하였으며 마지막으로 ‘肝中熱’, ‘肝中寒’, ‘肝虛冷’의 三大 症候를 說明했다. 其他 臟腑 또한 이와 같은 體系로 說明하였다. 이로써 『中藏經』으로부터 처음으로 ‘脈證’을 中心으로 五臟六腑의 寒熱虛實病證을 說明하여 孫思邈의 『千金要方』, 張元素의 『醫學啓元』 등등이 뒤를 따라 臟腑辨證의 體系를 이루어 나갔다 할 수 있다.

3) 八綱辨證을 처음으로 體系化 『中藏經』에서는 複雜多端한 疾病症候를 ‘陰陽虛實寒熱’의 方法으로 各各의 疾病性質을 辨別했다. 이러한 점은 四篇 「陽厥論」, 五篇 「陰厥論」, 七篇 「寒熱論」, 八篇 「虛實大要論」 등에서 보이는데, 이를 說明해 보면 ‘陰厥’, ‘陽厥’은 陰陽之氣의 厥逆 失常을 指稱하고 偏盛偏衰의 病變을 말하고 있다. ‘陰厥’은 疾病의 性質上 陰의인 類型의 病證이고 ‘陽厥’은 陽의인 類型의 病證 形態로서 「陽厥論」, 「陽厥論」 2篇에서는 陰陽이 類證의 總綱이 됨을 指摘하였다.

寒熱은 陰陽 盛衰의 外的인 表現으로 疾病을 辨別하는 具體的인 綱領으로 說明했다. 七篇 「寒熱論」에서는 各種 寒熱 表現의 不同한 病機 및 그 症候 病變의 特徵을 論述하고 寒熱出現의 先後를 說明했으며 上下를 結合해서 ‘色’과 ‘脈’이 陰陽盛衰의 識別要領임을 말하고 그 臨床의인 意義를 說明했고 八篇 「虛實大要論」에서는 臟腑 上下 虛實의 脈症 特徵에 대해 說明하고 臨床的으로 邪正盛衰의 大綱을 說明했다. 病位의 表裏에서는 『中藏經』에서 專的으로 說明한 篇은 없으나 病症을 論한 內容을 살펴보면 四十一篇의 「論癰疽瘡腫」에 나타남 癰疽의 病을 說明함에 發于下者, 陰中之毒也, 發于上者, 陽中之毒也, 發于外者, 六腑之毒也, 發于內者 五臟之毒也 등등으로 表裏淺深을 辨別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八綱’은 『內經』에서 分散되어 論述되어 系統的인 辨證理論으로는 形成되지 않았으나 華佗의 『中藏經』에서 八綱이 陰陽寒熱虛實의 病證으로 큰 發展을 이루어 後世의 系統的인 八綱辨證體系를 이루는데 基礎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病症의 結合 辨病과 辨證을 서로 結合하고 어떤 臟腑의 疾病인가를 明確히 하여 陰陽寒熱虛實의 證을 辨別한 것이 『中藏經』 臟腑辨證體系의 重要한 特徵이다. 例를 들면 二十六篇 「論脾臟虛實寒熱生死逆順脈證之法」에서 脾臟의 生理關係를 簡略히 論述한 후 ‘面色萎黃, 飲食不消, 心腹脹滿, 身重肢痛甚 或 水泄失便, 目赤視腎反脹, 鼓脹, 脈實甚數’ 등의 共通的인 脈과 症의 特徵을 비롯한 脾病을 論述하고 다시 ‘脾實’, ‘脾虛’, ‘脾中風’, ‘脾脹’, ‘脾正熱’, ‘脾寒’, ‘脾積’, ‘脾絕’ 등의 諸證을 各各의 脈症으로 辨別하였다. 기타 다른 臟腑의 病症도 이와 같이 病證과 脈證을 結合하여 說明하였다.

『中藏經』에서는 外感病證의 論述 또한 詳細히 說明하였다. 例를 들어 ‘風寒濕’으로 因한 痺病을 說明함에 있어 痺病의 診斷 特徵을 總括적으로 說明하고 氣, 血, 肉, 筋, 骨의 五大症形으로 나누어 各各의 病情을 說明하였다. 이러한 點은 當時의 醫學 水準으로서는 간단한 일 아니며 辨病과 辨證의 理論的 體系를 세우면서 後世에 많은 影響을 미쳤다고 하겠다.

5) 四診의 參照와 ‘色’과 ‘脈’의 重要視 診斷法의 理論的인 面에서 『中藏經』은 『內經』의 四診合參의 方法을 繼承하였고, 聲, 色, 症의 方面을 綜合하여 病情을 考察하였으며 ‘平脈’과 ‘色’의 細密한 觀察을 重要視하였다.

이러한 特徵은 疾病診斷과 證候鑑別 및 病勢와 預後의 判斷, 臨床에서의 用藥時 一括적으로 나타나는 學術特徵으로 人體 生理의 有無盛衰는 ‘色’과 ‘脈’을 따라 反影된다고 認識했다.

四十八篇 「論診雜病必死候」에 이르기를 “夫人生氣健壯者, 外色光華, 內脈平調. 五臟六腑之氣消耗, 則脈無所依, 色無所澤, 如是者百無一生” 이라 하여 脈의 變化 情況은 모두 人體 氣血의 寒熱盛衰의 表現임을 말하였고, 十篇 「脈要論」을 보면 人體 氣血의 陰陽變化는 各種의 不同한 形態의 脈象을 反影한다고 詳細히 說明하고 있고 臟腑病證의 寒熱虛實을 辨別하는 要領을 말하였다. 또한 臨床治療上에 있어 脈이 爲主가 됨을 가리켜 四十七篇 「論諸病治療交錯治於死候」에서는 “凡脈不緊數, 則勿發其汗, 脈不疾數, 不可以下, 心胸不閉, 尺脈微弱, 不可以吐” 라고 說明하고 있다.

十一篇 「五色脈論」에서는 다시 ‘脈’과 ‘色’을 서로 參照해서 五臟의 危絕之症을

診斷한다고 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面青, 無右關脈者, 脾絕也, 面赤, 無右寸脈者, 肺絕也, 面白, 無左關脈者, 肝絕也, 面黃, 無左尺脈者, 腎絕也, 面黑, 無左寸脈者, 心絕也”라 하여 ‘色’과 ‘脈’의 重視性을 볼 수 있다. 『中藏經』과 『內經』에서의 色과 脈을 重視하는 思想은 서로 비슷하지만 『中藏經』에서는 이러한 思想을 보다 具體적으로 臨床과 聯關하여 結合했다고 볼 수 있다.

6) ‘水火之法’의 定立과 ‘順病’의 重要視 疾病의 種類는 매우 많지만 그 原因은 陰陽의 不均衡으로 볼 수 있는데 즉 陰陽의 偏성편쇠는 疾病發生의 根本 原因으로서 病을 治療하는데 있어서는 本을 구하고 陰陽을 잘 살펴서 調節해야 한다고 했다. ‘水’와 ‘火’는 陰陽의 性質로서 『中藏經』에서는 複雜多端한 病症을 治療하는데 水火로써 法을 만들었다. 十五篇 「水法有六論」과 十六篇 「火法有五論」에서는 陽(六腑)와 陰(五臟)에서 일어나는 各種의 症候를 論述하고 陰陽으로 統括하여 說明하고 있다.

이러한 基礎위에 十六篇 「火法有五論」에서 “水火之法, 眞陰陽也, 治救之道, 當詳明矣”라 하여 水法은 陽性의 病證(腑病)을 治療하는 總則이고, 火法은 陰性의 病證(臟病)을 治療하는 大法임을 說明하고, 『內經』의 ‘陽病治陰’, ‘陰病治陽’의 具體的인 方法으로 水火之法을 들었다. 『中藏經』에서는 治療上에 있어 ‘順病之宜’를 強調하여 十五篇 「水法有六論」內容 중의 “病者之樂, 慎勿違背”의 治療原則을 明確히 했다. ‘順病之宜’의 內容을 살펴보면 四十七篇 「論諸病治療交錯治於死候」에서 “夫病者, 有有宜湯者, 有宜圓者, 有宜散者, 有宜下者, 有宜吐者, 有宜汗者, 有宜灸者, 有宜鍼者, 有宜補者, 有宜按摩者, 有宜導引者, 有宜蒸者, 熨有宜澡洗者, 有宜悅愉者,

有宜和緩者, 有宜水者, 有宜火者. 種種之法, 豈能一也. 若非良善精博, 難爲取愈”라 하여 不同한 病情에 對한 治療上 劑型이 各各 不同을 說明했고, 또한 “且蕩, 可以蕩滌臟腑, 開通經絡, 調品陰陽, 祛分邪惡, 潤澤枯朽, 悅養皮膚, 益充氣力, 扶助困竭, 莫離於湯也. 圓, 可以逐風冷, 破堅癰, 消積聚, 進飲食, 舒榮衛, 開關竅, 緩緩然三合, 無出於圓也. 散者, 能去風寒暑濕之氣, 摠寒濕穢毒之邪, 發揚四肢之壅滯, 除剪五臟之結伏, 開腸和胃, 行脈通經, 莫過於散也. 下則疎豁閉塞, 補則益助虛乏, 灸則起陰通陽, 鍼則行榮引衛, 導引則可以逐客邪於關節, 按摩則可以驅浮淫於肌肉, 蒸熨酸冷, 緩洗生陽, 悅愉爽神, 和緩安氣”라 하여 藥物의 劑型과 治療原則을 各各의 病症에 適切하게 해야 한다고 說明하고 있다.

## 2. 「中藏經」 下卷 ‘療諸病藥方六十道’에 關한 考察

‘療諸病藥方六十道’가 華佗가 쓴 것이 아니라 說의 根據를 方劑와 本草史의 面에서 살펴보면 2가지 內容으로 分類할 수 있다.

1) 『千金方』과 『外臺秘要』에서 引用했다고 稱하는 華佗의 方<sup>30)</sup>은 『中藏經』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中藏經』에 記載된 方은 後世에 著作된 冊에서 引用된 바가 적다.

2) 『中藏經』에 실린 諸方의 藥名은 唐宋代의 本草書에 記載된 藥物이 많다.

이를 좀더 자세히 研究해보면 다음과 같다.

『中藏經』의 諸方이 後世에 引用된 바가

없고 다른 冊에서 華佗의 方을 볼 수 있는 것은 逆說의 逆說으로 『中藏經』이 華佗의 著作이라는 說이 立證된다고 할 수 있다. 대개 後人의 僞作은 必히 假托한 內容으로 原文을 보충하고 原文의 內容으로 假托한 바를 꾸미는 것이 例事이므로 이런 식이라면 『中藏經』의 諸方 內容 中에 他書에 記載되어 世間에 比較的 널리 알려진 方들이 混雜되어 있었을 것이나 當時의 歷史的인 狀況으로 因해 처음에는 隱匿되었다가 나중에 나타난 關係로 이런 現象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療諸病藥方六十道’를 보면 몇 개의 藥方을 除外하고 나머지 大部分은 應急時 使用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主治, 組成, 劑型 등의 方面에서 比較해 볼 때 症을 알고 段階的으로 投藥하는 藥方인 동시에 診療史의 面에서 初期 段階의 冊임을 알 수 있는데 ‘識症’, ‘決生死’, 用藥時 ‘簡, 驗, 便, 廉’ 등의 醫方書에 關聯된 主要 特徵이 어느 정도나마 集大成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華佗와 仲景이 거의 同時代인임을 考慮할 때 『傷寒雜病論』과 『中藏經』 모두 『內經』을 基本으로 삼았지만 著者들의 經歷과 治療的인 側面이 많이 달라 實地로 同源二流의 2個 學派를 形成했다는 假說을 세울 수도 있다 하겠다.

『中藏經』의 內容上 上 中卷은 上古醫經을 根據로 臨床經驗과 結付시켜 펴낸 것으로 직접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手冊’의 形式인 故로 그 方은 다른 사람이 모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他書에 많이 引用될 수 없다. 이런 점으로 보면 『千金方』에 華佗의 方이라 收錄된 것이 오히려 그 眞僞를 가려낼 餘地가

30) 『千金方』과 『外臺秘要』에서 華佗의 方으로 引用한 것에 ‘雜療傷寒赤散, 治栖常山桂心丸, 灸霍亂法, 療胃反眞珠丸, 五嗽丸, 線軋五丸, 治下利黃連亂發丸, 療發背腸癰木占斯散’이 있고, 『後備急方』에서 引用한 것으로 『尸注鬼注篇』에 나오는 ‘華佗狸骨散, 龍牙散, 羊脂丸’ 등이 있다. (章太炎, 『中藏經』出于宋人, 浙江中醫雜誌, 25(6): 286, 1990. 參考).

있다고도 볼 수 있다.

‘療諸病藥方六十道’에 나오는 方中の 大多數 藥物이 漢代以後에 出現한 것은 사실로써 例를 들어 ‘何首烏’라는 名稱은 唐末期, ‘鵝梨’의 名稱은 宋代에서부터 나왔고, 『千金要方』이나 『廣濟』 등의 諸方에서 ‘髑髏’를 ‘天靈’이라 稱했으며, 또한 方藥中에 ‘太平錢’, ‘山藥’ 등의 名稱이 나오는데 ‘太平’은 宋 熙陵初의 年號이며, ‘山藥’은 옛날 ‘薯蕷’라 했으나 宋 英宗의 諱를 避하기 위하여 고친 것이다. 또 牢牙地黃散의 細注에 나오는 “此方見僧文瑩湘野山錄”의 文瑩은 宋나라의 僧이며 方藥中에 나오는 圓, 散, 膏, 丹 등의 成方은 宋代方書의 特徵이다.<sup>31)</sup> 이러한 內容을 좀더 살펴보면 『中藏經』에 나오는 藥名中 現在의 藥名과 같은 것이 162種이고 『神農本草經』에 記載되지 않은 것이 107種, 『神農本草經』에는 記載되었지만 後代에 이름이 바뀐 것이 7種으로써 『中藏經』에 記載된 藥物中에서 66.4%는 알려진 藥物이고 나머지 43.6%는 알려지지 않은 藥物이다.<sup>32)</sup> 이렇게 漢代以後 唐宋代의 本草書부터 記載되기 始作한 藥物名이 많은 關係로 대개 『中藏經』이 後人の 僞作이 아닐까 하는 說의 根據가 되는데 이를 좀더 研究해보면 알려지지 않은 藥物 43.6%를 除外한 나머지 66.4% 中에서 唐宋以前의 本草書에 記錄된 藥名도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例를 들어 ‘出’一味를 本草史의 으로 分析해 보면 ‘白朮’과 ‘蒼朮’로 나눌 수 있는데 ‘蒼朮’의 名은 11世紀末의 『經史證類備急本草』에 記載되므로 ‘蒼朮’을 包含

한 方은 後人の 僞作일 可能性이 많다 하겠지만, ‘白朮’의 名은 A.D.500年頃의 『本草經集注』에서 나오는 바<sup>33)</sup> ‘白朮’을 含有한 方은 僞作일 수가 없다. 또한 각 版本의 全體的인 內容 比較上 특히 ‘療諸病藥方六十道’에 나오는 方中の 藥物組成과 分量이 많은 差異를 나타냄을 볼 수 있는데 이는 後人이 增附한 바가 많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다른 角度에서 보면 上述된 2)에 관한 內容은 本草史의 으로 充分한 調査가 缺如된 內容으로 각 版本의 仔細한 比較 檢討 및 本草史와 方劑史를 包含한 深度깊은 醫史學的 考察이 必要할 것으로 여겨진다.

## VI. 結 論

漢代의 華佗가 撰한 『華氏中藏經』을 研究한 結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結論을 얻었다.

1. 『中藏經』의 傳本形態에는 크게 ‘一卷本’, ‘三卷本’, ‘八卷本’, ‘二卷本’의 4가지 形態가 있고 그 중 三卷本 系統과 八卷本 系統에 該當하는 『中藏經』을 比較 研究한 結果 그 內容上 差異點이 많이 發見되었는데 上 中卷의 內容보다 下卷 ‘療諸病藥方六十道’에서 差異가 甚했고 이는 곧 이 冊이 後人들의 손을 많이 거친 끝에 實際 原文 보다 內容上 增附가 많았다는 것을 意味한다.

2. 信憑하기가 어려운 鄧處中의 序文內容과 『三國志』 및 『宋·藝文志』에 실린 華佗와

31)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p.131.

32) 孫光榮, 『“療諸病藥方六十道”初考』, 江西中醫藥, 19(5): 54, 1988.

33) ① 唐慎微,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p.151.

② 蘇頌, 『圖經本草』,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8, pp.69,70. “陶隱居云,……, 朮乃有兩種, 白朮葉大有毛而作, 根括而少膏, 可作丸散用, 赤出葉細無, 根小苦而多膏, 可作煎用. 昔劉涓子採取其精而丸之, 名守中金丸, 可以長生, 東境朮大而無氣烈, 不任用. 今市人賣者, 皆以米粉塗令白, 非自然, 用時宜刮去之”.

『中藏經』에 관한 短篇的인 內容 등, 『中藏經』이 後人들의 僞作이라는 一般的으로 認識된 說의 根據를 살펴본 結果 不適當한 點이 많았고 이 冊의 基本的인 內容全部가 僞作이 될 수 없다는 可能性을 發見할 수 있었다.

3. 『華氏中藏經』三卷本은 上·中·下 三卷으로 나뉘어져 있고 上·中卷에는 總論과 臟腑辨證, 諸疾病의 診斷 및 治療에 關한 內容이 실려 있고, 下卷에는 六十八種의 附方이 실려 있어 初期段階에 該當하는 醫方書의 形態를 充分히 갖추었다.

4. 『中藏經』에 담긴 學術思想의 主要 特徵으로는 天人相應, 脈證을 中心으로 한 臟腑辨證 및 虛·實·寒·熱·生·死·順·逆의 八綱辨證, 四診 중 色과 脈의 重要視, 水火之法 등을 들 수 있는데, 그 內容을 살펴보면 모두 『內經』의 思想을 근간으로 하여 臨床經驗과 結付시켰음을 볼 수 있다.

5. 上中卷의 內容중 특히 第四篇 「陽厥論」, 第五篇 「陰厥論」, 第七篇 「寒熱論」, 第八篇 「虛實大要論」 등에서는 陰陽虛實寒熱의 方法으로 疾病의 辨證이 이루어져 『內經』에서 分散되어 있는 辨證에 關한 理論을 처음으로 體系化함으로써 後代의 八綱辨證體系에 影響을 미쳤다.

以上の 結果를 綜合해보면 『中藏經』이 托名이 되었다든지 後人의 僞作이라는 說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中藏經』에 담긴 內容의 높은 學術的인 價値에 비해 그에 대한 充分한 研究가 現在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傳本의 多樣함으로 인한 『中藏經』 傳本間의 不同한 內容과 普遍化되어 버린 『中藏經』에 대한 얕은 認識 때문이라 여겨지며 이의 解決을 위해 우선 各 傳本間의 보다 자세한 比較 檢討와 內容

把握이 先行되어야 한다고 思料된다.

## 參 考 文 獻

1. 表天根：黃帝內經에 對한 書誌學의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2.
2. 洪元植 編：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3. 葛 洪：肘後備急方, 文淵閣四庫全書, 卷二, 서울, 驪江出版社, 1988.
4. 甄志亞 編：中國醫學史, 서울, 一中社, 1992.
5. 郭霏春 編：黃帝內經詞典, 서울, 一中社, 1992.
6. 郭鶴春 編：黃帝內經素問校注語釋, 서울, 醫聖堂, 1993.
7. 郭鶴春 編：黃帝內經靈樞校注語釋, 서울, 醫聖堂, 1993.
8. 郭振球：『中藏經』論疾疹病的 思維方法, 山西中醫, 7(4), 1991.
9. 孔健民：中國醫學史綱, 北京, 河北出版社, 1988.
10. 唐慎微 編：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 서울, 大星文化社, 1983.
11. 馬繼興：中醫文獻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0.
12. 馬堪溫：華佗是中國醫學史上的光榮, 27(1), 中醫雜誌, 1986.
13. 賈維誠 編：三百種醫籍錄, 哈爾市, 黑龍江科學技術出版社, 1982.
14. 范 曄：後漢書, 서울, 景仁文化社, 1983.
15. 蘇 頌：圖經本草, 福州, 福建科學技術出版社, 1988.
16. 巢元方：巢氏諸病源候論, 文淵閣四庫全書, 卷二, 서울, 驪江出版社, 1988.

17. 孫光榮：“療諸病藥方六十道”初考，江西中醫藥，19(5)，1988.
18. 孫思邈：備急千金要方，서울，大星文化社，1992.
19. 沈炎南 編：脈經校注，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1.
20. 楊上善：黃帝內經太素，서울，大星文化社，1991.
21. 楊維傑 編：黃帝內經釋解，서울，成輔社，1980.
22. 嚴世藝 編：中國醫籍考，上海，上海中醫學院出版社，1992.
23. 靈樞經，四部叢刊正編，上海，商務印書館，1921.
24. 王 燾：外臺秘要，文淵閣四庫全書，卷五，서울，驪江出版社，1988.
25. 王 冰：靈樞經，文淵閣四庫全書，卷一，서울，驪江出版社，1988.
26. 王 冰：黃帝內經素問，文淵閣四庫全書，卷一，서울，驪江出版社，1988.
27. 王叔和：脈經，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2.
28. 李聰甫 編：中藏經語釋，北京，人民衛生出版社，1990.
29. 章太炎：『中藏經』出于宋人，浙江中醫雜誌，25(6)，1990.
30. 陳夢賁 編：中國歷代名醫傳，北京，科學普及出版社，1987.
31. 陳 壽：三國志，서울，景仁文化社，1983.
32. 扁 鵲：難經，四部叢刊正編，上海，商務印書館，1921.
33. 胡天雄：素問補識，北京，新華書店北京發行所，1991.
34. 華佗：中藏經，江蘇省，江蘇科學技術出版社，1985.
35. 華佗：華佗神醫秘傳，遼寧省，遼寧科學技術出版社，1984.
36. 滑 壽：難經本義，臺北，集文書局，1971.
37. 黃帝內經素問，四部叢刊正編，上海，商務印書館，1921.
38. 丹波元胤 編：中國醫籍考，北京，人民衛生出版社，1983.
39. 諸橋轍次：大漢和辭典，東京，大修館書店，1984.